

3/20/2022 22-13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자) 사순 제3주일 (Vi) 3rd Sunday of Lent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If you do not repent, you will all perish as they did." 루카 13.3 / Lk 13:3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월/수/토휴무 M/W/Sat Closed (Until 11/30 Temporary Schedule)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지식	(총구역장)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굳셈	손(데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외	김(데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3월 / March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도록 기도합시다.

For a Christian response to bioethical challenges

We pray for Christians facing new bioethical challenges; may they continue to defend the dignity of all human life with prayer and action.

사순 제3주일 (다해) / 3rd Sunday of Lent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 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My eyes are always on the Lord, for he rescues my feet from the snare. Turn to me and have mercy on me, for I am alone and poor.

【제1독서/First Reading】 ··············· 탈출 3,1-8기ㄷ.13-15 / Ex 3:1-8a, 13-15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The Lord is kind and merciful.

【제2독서 / Second Reading】 ································· 1코린 10,1-6.10-12 / 1 Cor 10:1-6, 10-12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Glory and praise to you, Lord Jesus Christ.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Repent, says the Lord;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복음 / Gospel】 † 루카 13.1-9 / Lk 13:1-9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 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 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The sparrow finds a home, and the swallow a nest for her young: by your altars, O Lord of hosts, my King and my God. Blessed are they who dwell in your house, for ever singing your praise.

	Ti	사지향(Ma	ss Intention)		
Date/Time	3/20 10am	3/20 3pm	3/22 7:30pm	3/23 10am	3/24 10am	3/25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김율리안나,양헬렌, 유시몬 신부님,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김대식 베드로,이불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박바드리시아, 채말기 모니카,변정창 마리아, 신바오로,김아녜스,최제희, 김동억 바오로 신부님	Charles Angel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윤요한
생미사(L)	홍마리고레띠,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김리디아,김세례자 요한,김다니엘,이도미틸라, 이미자 데레사&조앤,박우슬라 가정, 김소피아,유재숙 카타리나,박마리아, 이디모테오&카타리나, 현마리안나 가정,김수진데레사, 홍요안나&미카엘,임미숙 로사 강두섭 토마스	Cecilia Park Fred Garcia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멸망하지 않으려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도 많은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특히, 오늘 복음속에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루카:13.1). 또 예수님께서 사고 하나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실로암 탑이 무너져 열 여덟 사람이 사망 (루카:13.5)했다는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사건과 사고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눈 여겨 볼 것은 갈릴래아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탑으로 죽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들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처럼 멸망한다(루카:13.4)"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 죽은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들은 갈릴래아에서 죽은 사람들과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기 때문으로 여긴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욥기 등을 보면(욥 4,7; 8,4.20; 22,5; 탈출 20,5 참조) 범죄와 벌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의 본뜻은 죽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물들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한가 정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정이 파괴되고, 역사적으로 사회가 주님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도탄에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건강한 가정은 주님을 받아 들임으로서 가정이 기도와 희생, 인내, 사랑을 배우는 동시에 세상에 평화를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정의 파괴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애착에서 시작되며, 부부간의 이기심과 잦은 다툼의 원인은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느님이 집안에 없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회 또한 하느님의 사회적 정의가 없으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결국 망하게 된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비근한 예가 독일의 '나찌주의와' 일본의 '침략주의'가 예일 것입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이기심을 키우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을 얼마나 많아봅니까. 한창 진행중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느님을 찾지 않은 마음, 곧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정의 할 수 도 있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 평화와 위안, 기쁨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Not to perish

If you read the Gospels, it seems that there were many events in the time that Jesus lived. In particular, in today's gospel, it appears that Governor Pilate killed the Galileans (Luke 1:13.1). Also, when Jesus speaks of an accident, he tells us that the tower of Siloam fell and 18 people died (Luke 1:13.5). It shows that it is no different from the current events and accidents in which we live.

Let's take a look here, what are the deaths of the Galileans and those who died from the tower of Siloam? no see. Jesus refers to these two events and says, "Unless you repent, you will perish like this" (Luke 1:13.4). Then you might think that the reason the dead people perished was because they did not repent.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uance in these words of Jesus that we consider the people who died in Galilee and those who died because the Tower of Siloam to be more sinful. In fact, if you look at the book of Job and the like (see Job 4,7; 8,4.20; 22,5; Exodus 20,5), it appear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However, the true meaning of Jesus' words is not on the dead, but on the repentance of those who are now listening. This means that our sins are staining us on the road to destruction.

In fact, we see cases where families are destroyed because they do not accept the Lord, and historically, society is in a state of crisis because they do not accept the Lord's justice. A healthy home brings peace to the world while a home learns to pray, sacrifice, persevere, and love by receiving the Lord. The destruction of families in modern society begins with excessive attachment and attachment to material things, and the cause of selfishness and frequent quarrels between married couples is the lack of peace. After all, this is what happens because God is not in the house. Society, too, without God's social justice, will encounter a history of corruption and eventually ruin. A pitiful example would be Germany's 'Naziism' and Japan's 'aggressionism'. How many times do you increase your selfishness and oppress others by not accepting God? It seems that the ongoing war in Ukraine can be defined as a heart that does not seek God, that is, an unrepentant heart.

Jesus pleads with us to return to God. He teaches that all things are in the Lord and that abiding in Him is peace, comfort, and joy. Because by accepting the Lord, we can live a life of peace and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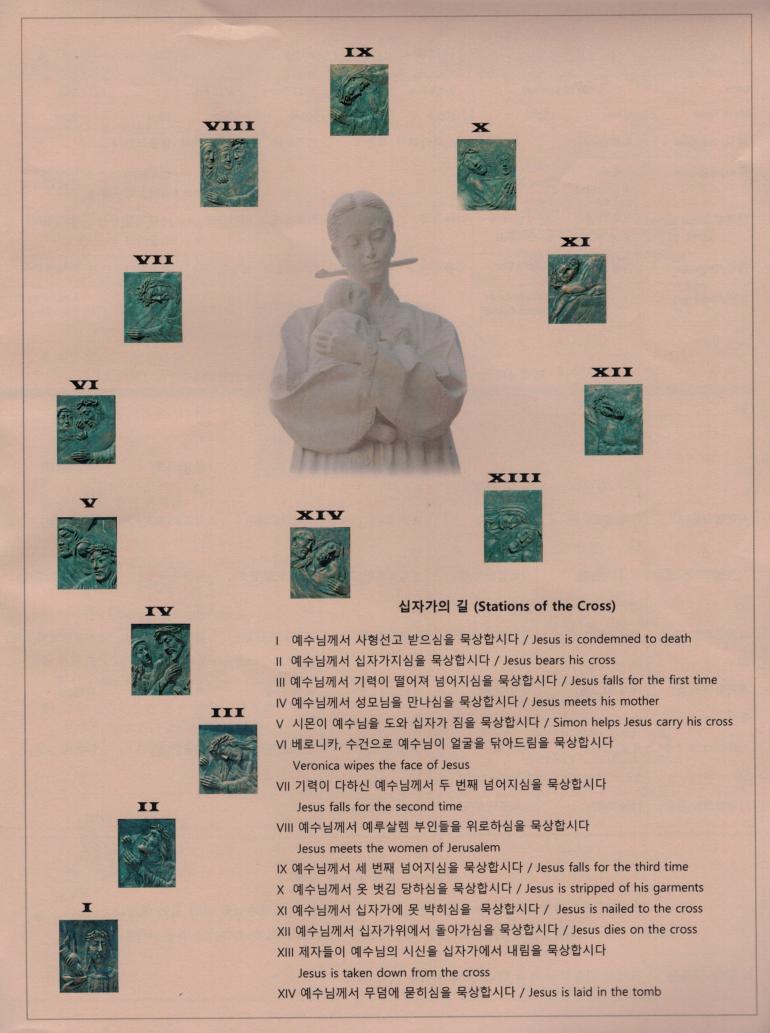
FR. Dae-seon Kim

Bible Trivia 1001

- 45. "The Lord is my Shepherd," is the opening line to which Psalm?
- 46. What is the last book of the New Testament?
- 47. Who wrote the majority of the New Testament letters?
- 48. What was David's occupation before he became king?
- 49. Who hid two spies but claimed not to know of their whereabouts when asked?

Answers from 2/27 Bulletin

40. Threw him in a pit and then sold him to strangers 41. Paul 42. Linen clothes 43. Aaron 44. Murder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3/20	Sunday	3/15 Tue	3/16 Wed	3/17Thurs	3/18 Fri	3/27	Sun
Mass Time	10am	3pm	7:30pm	10am	10am	7:30pm	10am	3pm
해설/ Narrator	김세실리아		김소화데레사	박분도	변리오바	김소화데레사	송율리안나	
독서/ Readers	김분도 송율리안나	Cecilia Park Fred Garcia					신모니카 김혜진세실리아	Cecilia Park Fred Garcia
전례부/Altar Server	오미카엘라 박아가다	안세실리아	박아가다	안세실리아	최클라라	김마지아	박아가다 최클라라	김마지아
반주/Organist	강실비아	Juliana Cho	조율리안나	김미카엘라	김미카엘라	조율리안나	김스콜라스티카	Juliana Cho
봉헌/Offertory		Antoinette A. Cecilia Cosme						Antoinette A. Cecilia Cosme

사순시기 복음묵상과 묵주기도

저녁 9시 Zoom Meeting ID: 860 6709 3499 Passcode: 197139

	^	7 97 Zoom Weet	ilig ib. 800 0703 343	99 Passcode: 1971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지식(환희)	경외(빛)	굳셈(고통)	의견(환희)
6	7	8	9	10	11	12
사목협의회(빛)	지혜(고통)	통달(환희)	효경(빛)	성가대(고통)	연령회(환희)	해설단(빛)
13	14	15	16	17	18	19
사목협의회(고통)	양업회(환희)	사목협의회(빛)	성체조배회(고통)	셀 기도회(환희)	성경공부(빛)	성무일도(고통)
20	21	22	23	24	25	26
사목협의회(환희)	성령기도회(빛)	주일학교(고통)	제대회(환희)	재정위원회(빛)	전례부(고통)	사목협의회(환희)
27	28	29	30	31	4/1	2
사목협의회(빛)	레지오(고통)	지식(환희)	경외(빛)	굳셈(고통)	의견(환희)	지혜(빛)
3	4	5	6	7	8	9
사목협의회(고통)	통달(환희)	효경(빛)	성가대(고통)	연령회(환희)	해설단(빛)	양업회(고통)
10	11	12	13			
사목협의회(환희)	전례부(빛)	성체조배회(고통)	전신자(환희)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일정

주일 미사후 야외 '십자가의 길'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어 봅시다. 3/6(일): 경외 3/13(일): 굳셈 3/20(일): 통달 3/27(일): 지식 4/3(일): 지혜 4/10(일): 의견 4/15(금): 효경

※ 담당 구역은 각 처에서 기도하실 분을 미리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소식 / Parish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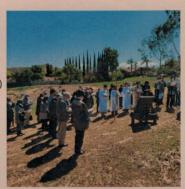
- ◆ 전례단 모임 (Liturgy Leader Meeting) 일시: 오늘 10시 미사 후
- ◆ 전례부 모임 (Altar Server Meeting) 일시: 3/27(일) 10시 미사 후
- ◆ 4월 매일미사 책 사무실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 ◆ 구역모임 (Territory Meeting) Zoom

지식: 3/21(월) 오후 7시

지혜: 3/27(일) 오후 1시 / 장소: 강프란치스코 형제님 댁

경외: 3/28(월) 오후 7시

- ◆ 사순시기 복음묵상과 묵주기도 기간: 3/2~4/13 오후 9시
- ◆ 사순시기 '심자가의 길' 3/6, 3/13, 3/20, 3/27, 4/3, 4/10 이 기간동안 주일미사 후 야외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 주일학교 임시 비대면

현재 Omicron 확산으로 교구지침에 따라 1/9~3/31 까지 비대면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Due to rapid increase of Omicron virus, Religious Ed will have online classes from 1/9 - 3/31

-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일시(Date/Time): 4/1(금/Fri) 8pm
- ◆ 첫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일시(Date/Time): 4/2(토/Sat) 10am
- ◆ 그룹 성경공부반 성전 앞에서 모집합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복음) 문의: 윤심포로사(성경봉사회): 951-966-5868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라 하지 말고 가 거네서 떨어뜨겁고 하였다.



They led him to the brow of the hill to hurl him down headlong. 114.75

2022년 교무금/교구발전기금 신립 2022 Envelope/DDF Pledge

구역	교무금	DDF
경외	\$12,100	\$4,000
굳셈	\$12,420	\$1,460
의견	\$14,000	\$1,100
지식	\$11,340	\$2,510
지혜	\$19,820	\$5,142
통달	\$7,920	\$1,360
효경	\$18,900	\$2,160
기타	\$480	\$480
합계	\$97,980	\$18,212

*** 73가정 신립

◆ 2022 신립서 / 2022 Pledge Card

아직 2022년 신립서를 제출 못하신 교우분들 은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ubmit the pledge cards into the blue box at front of the lobby.

3/13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wee	ekt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638 (81명)/ 2차: \$523 3pm: \$130(30명)/ 2차: \$662
	\$1,650 이동욱,홍완선,윤요세피나,익명
교구발전기금 DDF	\$50 이동욱
합계 Total	\$3.653

주보광고 / Bulletin Ad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ANTEX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교리상식 101

8. 전례력에 따르면 가, 나, 다해로 구분되고, 독서와 복음도 다른데 왜 그런가요?

교회는 연중 시기의 주일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의 주요 부분을 3년 동안에 다 들을 수 있게 '가해'에는 마태오 복음서를, '나해'에는 마르코 복음서를, '다해'에는 루카 복음서를, 연중 제 2주일과 '나해'의 연중 제17-21주일에는 요한 복음서를 읽도록 하였습니다.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그 전례 시기와 조화를 이루는 복음을 읽습니다.

주일 미사의 제1독서는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읽고, 부활 시기에는 사도행전을 봉독합니다. 제1독서는 그날 복음의 주제와 일치하는 성경 본문이 배정됨으로써 신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배려하면서 신약이 구약의 완성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독서는 신약 성경의 서간이나 요한 묵시록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일 미사에서는 1년 동안에 복음서를 순서대로 읽도록 하고, 독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요 부분을 2년 안에 다 읽을 수 있게 홀수해와 짝수해로 나누어 가급적 연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순, 대림, 성탄, 부활 시기의 독서는 전례시기의 특징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미사 독서 목록』 지침참조).

말씀 전례는 성찬 전례와 함께 미사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말씀의 풍부한 식탁을 마련하고자 성경의 보고를 널리 개방하고, 회중들에게 성경의 주요 부분을 일정한 햇수 안에 낭독하도록 위와 같은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전례 현장 51항 참조).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